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3월 2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5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와 우리 가족 모두

교회중심으로,

열심히 예배하며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복을

배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김 미 숙 -

저는 집안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미신을 좇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1년에 셀 수 없이 많은 굿을 하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만 해도 집으로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수원으로 올라와 먼저 수원에서 살고 있던 오빠의 전도로 함께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오빠와 둘이서 교회에 가 즐겁게 청소 봉사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학교에서 어린 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직장 동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불신자였던 남편은 저와 교제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변화되어 한동안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직장을 옮기면서 안산시로 이사를 한 후로 교회 출석을 등한시 하기 시작하여 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예배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세대 주택 1층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살던 시어머님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저희가 사는 안산으로 올라와서 함께 계시면서 대학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낮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지낼 때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로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이웃에 사는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어머니가 수척한 모습으로 홀로 방에 누워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신 구역장님은 어머니에게 천국 복음, 치료의 복음을 전하시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하고, 꼭 읽어보라며 교회의 복음전도지를 놓고 가셨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니가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돌아오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효심이 깊었던 남편은 복음지에 실린 전화번호로 교회에 전화하여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안산에 교회당을 건축하기 전이어서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모시고 교구버스를 타고 안양성전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 목사님의 말씀 듣기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가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예배, 주중예배,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해 겨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활하시던 시어머님이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별나게 효자였던 남편이 마음을 못 잡고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굳게 붙들어주어야 할 저마저 점차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원으로 집을 이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금식기도에 이어서 21일간,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남편이 가정의 신실하고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동역자, 함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주택이라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숨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마친 남편이 아무 말없이 외출을 했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하였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서면서 남편이 말하기를 “성가대에서 봉사하려고 수원성전에 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일 9시 30분 예배 성가대에서 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주일이 되면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아침 일찍 교회에 가고, 저도 뒤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저도 같은 성가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안산에서 살 때 병석에 계시던 시어머님을 전도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지를 전해준 구역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고 주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족이 되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들을 붙들어주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수원 울전에 울전성전 교회당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마침 교회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남편은 성가대의 중책을 맡아 봉사하고 저는 성가대와 성전 꽃꽂이 봉사와 함께 선교회에서 전도 봉사를 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구역장님들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제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구역장 세미나 때마다 전도상을 받는 큰 복을 배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디스크 수술을 2번 받았고 또 식도이식 수술과 성대마비 수술을 받아서 온몸 여기저기 만성통증을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관절이 닳아서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날짜까지 잡았던 수술을 취소하였습니다.

한쪽 성대는 수술받은 후에도 마비되어 있지만 다른 한쪽 성대는 온전하므로 성가대 봉사를 계속하고, 다리가 아파도 걸을 수는 있으니 나가서 전도하며,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무릎이 퍼지지 않고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게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저는 먼저 병원에 갈까, 먼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교회로 가 수요일예배를 드린 후에, 변함없이 복음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지를 전해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복음지 한 장을 전해주는 순간, 무릎의 통증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며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집까지 20분 이상을 찬송가 458장(주의 친절할 팔에 안기세)을 힘차게 부르며 걸어서 왔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구주 하나님, 이처럼 저와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배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3권 (7단원 : 은혜로운 교회 생활)

(제42과) 주께서 명하신 성찬

- 본문 : 마태복음 26:17-29
- 요절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 찬송 : 144장(새찬송가 144장), 281장(새찬송가 229장)

교회의 예식은 일종의 종교적 의식(儀式)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갖는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으나 성찬을 가리키는 용어들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만찬’(고전 11:20), ‘주의 잔과 주의 상’(고전 10:21), 떡을 떼(행 2:42~46) 등이 그것들입니다.

성찬 의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자리에서 정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도록 명하신 의식으로 공관복음서(마 26:17~29, 막 14:22~25, 눅 22:14~23)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행해져 왔으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성찬은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교회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셨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실 것과 또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첫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하시고 짐승의 피로써 이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으니 이것이 곧 새 언약인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써 세운 첫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써 갱신하신 것입니다. 성찬 의식의 은혜로운 성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성찬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여기서 우리는 성찬의 목적을 두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유월절이 시작되던 날 저녁에 행하셨는데, 이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와 그들의 짐승의 첫 새끼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재앙을 피하고 생명을 보전하였는데, 유월절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으며, 이로써 유월절 의식은 성찬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3. 성도는 합당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하였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정구적으로 성찬을 베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행해야 하는지는 성경에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단이나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매주, 또는 매월 행하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행하는 등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주 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7~29)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기를 잘 살피고 정결한 양심으로 성찬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난 바 되어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를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간에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복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